

결과보고 기안 첨부 양식

학습내용	회사의 언어
키워드	커뮤니케이션, 조직, 프리젠테이션
본 것 ▼ 자기계발 (책)의 주요내용	<p>1. 곰 같은 여우가 조직을 춤추게 한다 : 센스의 언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관계는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하며, 대화할 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준비해야하는데, 이는 질문하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우아하고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기술이 중요하며, 진실한 언어로 설득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p>2. 듣기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듣기의 언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사와 동료라는 세계를 여행하기 위한 입장권은 바로 듣기이다. 사람들은 제대로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가 말하려는 것을 마음을 열고 듣기를 할 때, 부하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다. <p>3. 스티브잡스의 화이트 보드: 표현의 언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는 관계 맺기이다. 발표를 할 때는 읽지 말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와 눈을 맞추고 상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사는 늘 시간이 없으므로, 상사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단순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깨달은 것 ▼ 나의 이해 · 해석	<p>센스의 언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손한 듣기를 통해 센스 있는 질문이 가능하며, 확인 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야 오해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아한 상사보다 까칠한 상사에게 보고할 때 맏집도 강해지고 아이디어를 어필하는 능력도 올라갈 것이다. <p>듣기의 언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이보다 앞서 생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화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과 정보의 정확성도 판단하면서 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들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요약하고 핵심 메시지를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 <p>표현의 언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효과적인 전달이 중요하고 이 때 이야기를 구성할 때, 청중이 관심가질 만한 이야기를 전달하고(도입), 흥미로운 근거를 제시해야하며(본론), 청중이 당신의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용할 것 ▼ 개인 · 직장	<p>팀장으로서 팀원들과 의사소통 할 때, 언젠가부터 듣기보다는 지시하고 혼자 말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급하고 중요하며 갑자기 회의를 하자고 했고, 팀원들의 반응을 살피기보다는 의사전달에 집중했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통해 팀원들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팀장이 되려한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센스 있게 듣기를 통해 상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진실로 마음을 열어 상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효과적인 대화를 이끌어나가 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야 겠다.</p>

학습내용	너는 나에게 상처줄수 없다.
키워드	관계, 자립, 자존감
본 것 ▼ 자기계발 (책)의 주요내용	1.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마음속의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나, 열등감을 느끼는 나, 완벽해지고 싶은 나를 인정하며 남들과 똑같아지기를 위해 애쓰지 않을 때 상처받지 않게 된다. 2.더 이상 모든 일을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하고 그 기대가 좌절될 때,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뒤집어씌운다던지 하지 말고, 분노와 원망을 거둬으로써 비로소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된다. 3.나는 거부한다. 내게 상 처주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억울하다고 해도 상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가식적인 말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그들 대신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상처를 마주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4.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는 법 타인에 대한 마음을 닫고 나의 중요성만 강조할 때 그 기대는 거부당하기 쉽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만큼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깨달은 것 ▼ 나의 이해 · 해석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애쓰지 마라” - 남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할 때, 자존감은 낮아지고 스스로 상처를 만들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고 인정할 때 온전한 자아를 갖게 된다.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라” -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낫는 상처는 없다. 자신을 죄책감에서 풀어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돈독한 우정을 나누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해보자. 고통과 실패 없이 기쁨과 행복, 성공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산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하고 받기도 한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가 문제다. 모든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전가해서 자기를 비하한다던지, 혹은 팀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던지 하는 것은 더욱더 불행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리라.
적용할 것 ▼ 개인 · 직장	서울 시민을 위해 근무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직원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문제 발생의 대응에 있어서도 자존감을 유지한 채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팀, 본부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팀원들과 협력하고 노력해야겠다.

이 독서노트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최 주 원
(거짓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합니다.)